

조안에서 형제자매된 누리와 동역자님께

그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누리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역자님,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겨울이란 고난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우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저(칭그스)는 요즘 긴 겨울을 잘 견디어 준 제가 대견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곳 키르기즈스탄 오쉬는 아직도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집이 많은데, 저희도 집과 누리의 난방을 석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는 겨울에 전기가 자주 끊어지기도 하고, 추워지면 도시가스도 요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질 때가 많은데, 가격도 저렴한 편이 아니라 난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주택에서의 삶은 '겨울나기'라고 할 정도로 11월부터 3월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석탄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하늘이 석탄 연기로 시커멓게 되고, 앞 마당과 도로도 석탄 먼지로 검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석탄 불을 지피는 저의 손도 그을음으로 검게 변하게 되지요.

오쉬에서 겨울의 하루의 일과는 아침 6시반에 누르기숙사 아침 누리교회로 아침을 열고, 누리와 집의 석탄 난로에 불을 피우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합니다. 한 시간 정도 불을 피우고 나면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석탄 보일러가 위치한 지하실 두 군데를 석탄불을 피우기 위해 왔다 갔다 하다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여겨지던 석탄 불 피우는 일이 지난 몇년 동안 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불 피우는 일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 하루종일 매여있던 석탄불 당번을 벗어나게 되니 무거운 짐을 내려 놓은 것만 같이 마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동역자님, 동역자님의 겨울은 어떠하셨는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동역자님의 삶에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하시는 누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리 누리

누리 누리는 2024년에도 변함없이 누리통독으로 한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도 그룹은 새해 첫째주에, 키르기즈 그룹은 둘째주에 모여 함께 구약누리를 읽었습니다. 작년에 졸업생을 떠나보내고 현재 누리의 인도그룹 지체들중 대부분이 2학년과 1학년, 어린 학생들이라서 영어로 읽는 누리성경이 익숙치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따라와 주어 감사했습니다.



키르기즈 그룹은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로 구약개관을 공부했습니다. 직장일로 참여 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어 아쉬웠지만 즐겁고 유익하여 여름에도 다시한번 더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인도그룹이나 키르그룹이나 누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하지만, 계속적으로 누리를 읽기를 격려하여 누리 전체를 읽고, 말씀의 토대위에 견고한 믿음을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여기 키르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의 인도 그룹은 아직은 학생들이라 주머니 사정이 빈약하고, 키르 그룹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지체가 없어서 누리의 재정은 늘 빈약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주 주일점심을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더 맛있는 점심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도유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빡빡한 시간표때문에 하루에 한끼 저녁만 제대로 끼니를 챙겨먹고 나머지 한끼는 길거리 저렴한 튀김류로 대충 때문다고 합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허물건 콩물로 만든 커리가 맛이없어 고픈 배를 움켜잡고 그마저도 거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기에 주중에도 서너번 스경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을 위해 커리를 만들고, 주일마다 ㄱ배후에 다같이 모여 점심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매주 주일점심 준비로 매주 지출되는 재정이 버거워서 이제는 점심을 주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낯선 타국에서 공부하며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라도 한번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주일아침 커리요리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어제는 이러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두 여학생을 통해 제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주일 ㄱ배를 마치고 두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 다음 일 점심을 위해 써 달라며 특별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ㄱ배시간에 늦게오고 밥만먹고 돌아가거나 헌금도 제대로 안하는 철없는 어린 학생들을 보며 속상할 때도 많지만 가끔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통해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한 주님을 느낍니다. 이런 것이 스교지에 사는 맛이 아닌가 싶어 감사했습니다.

술라미따

동역자님, 혹 언젠가 지난 편지에 소개해 드린 술라미따를 기억하시나요? 술라미따 자매는 올해 11학년, 17살인데,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월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술라미따의 아버지는 현재 행방불명이고, 엄마는 아이들을 버린 채 재가하여 러시아로 떠난 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그의 부모는 술라미따를 버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믿음의 고모들을 통해 ㄱ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2-3년간 술라미따는 동생 사무엘과 함께 방과후 저희집에 들러 저(마하밧)와 함께 스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는 술라미따의 대학진학을 위해 길을 보여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 아의 한 대학에서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줄테니 오라고 초청하였으나 엔지니어가 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어서 거절하였고, 주의 뜻을 물으며 길을 찾고 있습니다. 동역자님, 하늘 아버지께서 술라미따의 길을 여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위해 함께 손모아 주세요.

오쉬와 크즐키야 크렘 스학교 사역

작년 9월 부터 시작된 스학교 강의는 매달 한 두개의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쉬 스학교와 크즐키야 학교 강의가 동시에 이중으로 진행 되고 있어서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크즐키야 학교는 러시아와 키르기즈어 이중 언어로 통역을 하다 보니 강의 시간이 더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도 지난 3년간, 비쉬켄 과 한국, 오쉬에서 크즐키야까지 방문하여 수업해 주신 한인 사역자들과 현지 목회자들의 섬김으로 학생들이 많이 성장하고 도전받는 것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오쉬와 크즐키야 학생들은 3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마지막 학기입니다. 스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3학년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경사역과 자동차

겨울 동안 지방방문 안경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집으로 찾아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및 안경 제작으로 섬겼습니다. 지난 주에는 안경사역을 위해 오쉬에서 차로

2-3시간 거리의 잘랄라뵈트 지역으로 가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나서 결국 중간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약 5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나서 가지 못해서 속상하고 미안함이 컸습니다. 지난 12월에도 크즐키아 학교사역을 위해 가던 길에 아무도 없는 빈 들에서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서너시간 이상 지나가는 차량에 손을 흔들어 도움을 청하여야 했었는데, 엔진을 일부 들어내서 청소 하고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지 한달여 만에 이런 일이 또 생긴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차는 2001년식 차인데 출고한지 20년이 넘어 30만 키로 를 넘어 거의 40만키로를 주행한 낡은 차이다 보니 잦은 고장으로 사역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를 돕는 차량 기술자 바깥 아저씨가 엔진부위에 부품들이 낡아 물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아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서 차가 고장났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이 들어간 모터가 작동하지않아 새로운 모터를 구해서 교체 하거나, 지금 사용중인 모터를 완전히 들어내어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해서 다시 조립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새로운 모터로 교체를 하더라도 일을 잘한다는 보증이 없으니 (단, 3일간만 보증을 해주니 보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모터를 교체한다해도 새 모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중고를 구입해 야 하는데 그 모터의 성능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모터를 들어내어 청소하고 당분간 사용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의 소중한 발, 자동차가 작년부터 잦은 고장과 수리를 반복하게 되니, 지방사역이 있을 때마다 염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이로 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넘는 세월동안 헌금해주신 차량으로 평안하게 시골이든 어디든, 원하는 곳을 방문하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 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그간 감사를 잊고 주신 은혜를 당연하다는 듯이 누려왔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지난 주, 고장난 차를 차 기술자 쿠뵈트 아저씨의 자동차에 끈으로 연결하여 끌려가는 동안, 처음 오쉬생활 1년차에 고장난 첫번째 자동차가 티코에 끈으로 묶여 끌려갔던 기억이 나서 칭그스샘과 돌이켜 큰소리로 웃었습니다. 고장난 차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역자님, 지방사역을 위하여 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염려하기를 멈추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리라” 하셨던 말씀을 의지하려 합니다. 저희 가정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ㅎ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함께 ㄱ도해 주세요.

사마라 자매

지난 편지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라 자매는 현재 ㅈ학교 통역으로 섬기며, 크뎀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는 그간 러시아로 일하러 갔다가 일이 끊겨서 겨우 오쉬로 돌아온 남편 알리아르 형제가 사마라 자매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알리아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오던 중 이러한 상황이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알리아르 형제가 변화되어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ㄱ도합니다.

동역자님, 혹 기억하시나요? 동역자님의 도움으로 막내 아들 람잔을 양자로 등록하였던 것이 벌써 수년 전입니다. 람잔은 올 5월이면 만 5세가 되는데도 한두 단어만 알고 아직도 말을 못하는 터라, 그간 람잔의 입을 열어 주시기를 위해 ㄱ도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발달지체아 전문의를 통해 람잔이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람잔이 친모 뱃속에 있을 때 친모가 여러 약을 먹고 유산시키려 했던 영향이라고 합니다. 무책임한 남편의 이혼요구로 힘겨운 시기에 전문의에 의한 람잔의 자폐아 진단까지, 캄캄한 사마라 자매의 삶을 ㅈ께서 위로하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ㄱ도해 주세요.

저희가 오랫동안 꺾도해 온 것은 사마라 자매가 꺾학교 공부를 마친후 누르꺾회의 키르기즈 그룹의 사역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템학교에서 공부하고 통,번역으로 사역하는 틸틈이 시간을 내어 일대일 양육을 통해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곳 현지 꺾회의 리더들 중 상당 수가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말씀의 기초가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마라 자매가 말씀훈련을 기초부터 사역자 과정까지 꾸준히 받아 장차 누르 꺾회뿐만 아니라 오쉬꺾회와 더 나아가 키르기즈스탄 꺾회의 기둥같은 일꾼이 되어 이 땅의 꺾회와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 소망하며 꺾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어려운 마음으로 사마라의 가정을 위해서 한가지 더 꺾도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년여간 사마라 자매를 크템 꺾학교의 통역자로 세우고 저희와 동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가정이 매월 200\$정도의 월급을 주어 생활을 지원해 왔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특히 월세가 두 배 정도로 오르면서 저희 가정이 주는 200\$로는 아파트 월세를 제하고 나면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간은 남편 알리아르가 일을 할때마다 매 주 돈이 생기는데로 조금씩 보태주어 생활을 유지해 왔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부터 남편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못해서 많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동안 쌀과 기름, 야채등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것들을 보태주고 있지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꺾도중에 사마라 자매의 상황을 동역자님들과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나눕니다. 혹 사마라 자매의 가정을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샘, 한결이, 저희 가정을
위해 꺾도해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한 동역자님의 꺾도에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큰딸 한샘이는 지난 2월 19일에 코이카 '영 프로페셔널' 인턴쉽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2학년 2학기에 복학하여 다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평안으로 지켜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둘째 한결이는 여러분의 꺾도에 힘입어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에 입학,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살에 잘 적응하여 신실한 믿음의 일꾼되도록 중보해주세요.

저희 부부는 두 딸이 떠난 후 다시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마하밧)는 지난 2월 말, 크즐키아 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 강의를 마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누르 지체들과의 일대일 및 그룹꺾경 공부 사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저(칭그스) 또한 틸틈이 안경사역과, 4,5월에 있을 오쉬와 크즐키아 학교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다음의 두가지 꺾도제목으로 집중해서 꺾도해 주세요.

1. 오는 7월중에 저희 부부의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예정이라, 6월중에 영주권 연장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영주권 연장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꺾도부탁드립니다.
2. 또한 현재 저희가 월세(700\$)로 살고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오는 7월14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혹은 주인이 동의를 해주면 계약을 연장해야 할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뜻이 있다면 꺾회와 저희 거처로 사용할 집을 허락해 주셔서 평안히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손모아 주세요.

주안에서 한몸된 꺾회와 동역자님, 오랜 시간 부족한 저희 가정과 함께해 주신 동역자님께도, 이제 막 저희 가정과 새로이 동역을 시작하시는 꺾회와 동역자님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떠난후, 적적한 마음을 달래며 집안에 화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초를 키우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놀라곤 합니다. 죽은 듯 보이던 화초에도 물을 주고 사랑으로 돌보면 싹이 움터 살아나는 것을 보며, ‘아버지, 저희는 어째서 이 작은 화초 하나보다 못한지요, 변하지않는 저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저희안에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합니다.

동역자님, 저희 부부는 하루 하루 이곳 오쉬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역자님의 삶위에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소식드릴 때까지 평안하세요.

“너희 ○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말며”(사62:6下)

후원안내: 외환 920-193077-144(GMS 장용국/김미순), E-mail: lovekyr@gmail.com, 전화:070-8265-4383	국민 045-21-0809-660(김미순), 카톡아이디: Josephyk0315, lord4225 후원관리:김미영 (010-9696-5004)
---	---

키르기즈스탄 오쉬에서 장칭그스, 김마하밧 드림 (2024.03.11)